

#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 및 동료지지의 관계

김형석<sup>1</sup>, 이연희<sup>2</sup>

The relationship of Turnover intention, Gender stereotype, Resilience and Peer support among Male Nurses

<sup>1</sup>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 Background

- 직업에서 남녀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남자간호사는 증가하고 있음
-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감소,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및 다양한 대상자의 간호요구 충족, 타 직종과의 협력을 통해 간호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간호사 전체 인력 중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4.8%로 아직 매우 적으며 남자간호사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직을 고려하고, 실제 간호직을 떠나고 있음
-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 서비스의 질, 대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자간호사의 이직은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 시키고, 간호사들이 남성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직의도의 요인으로 성 고정관념, 성 역할갈등, 간호직을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직업 이미지,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회적지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며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개인의 내적요소와, 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나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과 동료지지의 관계를 관찰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 Purpose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 동료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남자간호사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이직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Method

■ **Research design** :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 **Sample**

- N=148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도 소재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남자간호사

■ **Instrument**

| Variables          | Instrument                    | Cronbach's $\alpha$ |
|--------------------|-------------------------------|---------------------|
| Gender stereotype  | 성 고정관념 측정 도구                  | .97 (하위영역 .84~.96)  |
| Resilience         | Resilience Scale (CD-RISC)    | .97 (하위영역 .88~.97)  |
| Peer support       | Social Provisions Scale (SPS) | .98 (하위영역 .92~.94)  |
| Turnover intention | Resilience Scale (CD-RISC)    | .94                 |

■ **Data analysis**

- SPSS WIN 26.0,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대상자 제 특성,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 동료지지, 이직의도
- **T-test, one-way ANOVA**: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 동료지지 및 이직의도의 차이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대상자의 이직의도, 성 고정관념, 회복탄력성, 동료지지의 상관관계
-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Result

### 1. Score of Gender stereotype, Resilience, Peer support,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평균  $2.63 \pm 0.80$ 점(5점 만점), 회복탄력성 평균  $3.00 \pm 0.85$ 점(5점 만점), 동료지지 평균  $2.66 \pm 0.92$ 점(5점 만점), 이직의도 평균  $3.43 \pm 1.15$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Variables          | Mean/SD         | Range   |
|--------------------|-----------------|---------|
| Gender stereotype  | $2.63 \pm 0.80$ | 1.3~4.5 |
| Resilience         | $3.00 \pm 0.85$ | 1.5~4.0 |
| Peer support       | $2.66 \pm 0.92$ | 1.0~4.0 |
| Turnover intention | $3.43 \pm 1.15$ | 1.0~5.0 |

### 2. Correlation among Gender stereotype, Resilience, Peer support,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회복탄력성, 동료지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회복탄력성과 동료지지는 상호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 Variables           | Gender stereotype | Resilience   | Peer support | Turnover intention |
|---------------------|-------------------|--------------|--------------|--------------------|
|                     | r(p)              |              |              |                    |
| Gender stereotype   | 1                 |              |              |                    |
| Resilience          | .11 (.177)        | 1            |              |                    |
| Peer support        | .13 (.104)        | .73 (<.001)  | 1            |                    |
| Turn over intention | -.03 (.713)       | -.62 (<.001) | -.72 (<.001) | 1                  |

### 3. Factors affecting on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료지지 ( $\beta = -.59, p < .001$ ), 회복탄력성 ( $\beta = -.20, p = .023$ ), 임상경력 ( $\beta = .14, p = .032$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3.9%이었음

| Variables         | B    | SE  | $\beta$ | t     | p     |
|-------------------|------|-----|---------|-------|-------|
| (constant)        | 5.86 | .30 |         | 19.31 | <.001 |
| Gender stereotype | .07  | .03 | .14     | 2.17  | .032  |
| Resilience        | -.26 | .11 | -.20    | -2.30 | .023  |
| Peer support      | -.74 | .10 | -.59    | -7.17 | <.001 |

F=44.05, p<.001  
R<sup>2</sup>=.552 Adjusted R<sup>2</sup>=.539

## Conclusion

-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에는 동료지지, 회복탄력성, 임상경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간호조직 내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임상경력, 회복탄력성, 동료지지를 고려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동료지지가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동료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상호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추후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